

목양칼럼

부르짖는 기도의 축복



김성광 목사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증경총회장
· 강남교회 당회장
· 강남침례교회 원장
· 북한민주화위원회 상임고문
·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객원교수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개와 마귀는 우리가 없으면 도망간다. 개는 돌 쫓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라고 말했다. 아무리 사나운 개라 할지라도 돌로 공격을 받게 되면 도망가는 것처럼 마귀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의 공격을 견딜 수 없이 무서워하므로 도망가는 것이다.

우리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지라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도 없도록 하는 기도 그 중에서도 묵상 기도가 아닌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 자신을 더욱 더 하나님께 처절히 드러내며 의지하는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3)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첫째,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미국의 심장건강협회의 회장인 스피스 박사는 묵상기도하는 사람과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묵상기도하는 사람보다 안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한다. 손등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준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에루살렘 성읍을 치우신다는 약속은 우리의 육체 뿐 아니라 영적인 강건함을 주신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이다.(렘33:6)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선진국가인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지어서 징계 받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회개하면 영육간 강건함의 축복을 받게 된다.

둘째, 죄사함을 받는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죄에서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죄 뿐 아니라 집단의 죄, 민족의 죄도 기도를 통해 용서받고 축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용서 받지 못할 죄가 없다.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에 나뉘어 읽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사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며 우리의 어떤 죄악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

님을 보여주신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면 용서받고 축복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셋째, 모든 복과 평안을 얻는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며 평강을 주신다. 우리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기도로 간구해야 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사도바울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고대 그리스의 신학자 클레멘트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심기도를 드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행복한 나라가 된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대한민국도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청와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전도의 역사를 일으켜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고 둘째 기도로 구해야 한다. 그 밖에 헌신과 구제를 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남에게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용기가 필요한데,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원인은 새벽기도와 철야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복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부르짖어 기도하여 선진국, 유럽국가처럼 잘사는 나라,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전쟁 준비만하는 공산당이 사라지고 한반도 평화와 하루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우리 모두 개인의 위기와 나라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고난이나 질병에서 치유받고 죄사함 받으며,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동정

인수위원장에 홍재철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17대 대표회장 인수위원장에 홍재철 목사가 선임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차기대표회장 김지연 목사는 구급 27일 인수위원회 첫 모임에서 회합하는 한기총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강석(합동), 이경원(합동), 유한기(통합), 인종수(고신), 고창근(대신), 정인도(기침), 임석영(합신), 한영훈(한영) 등이 인수위에 참여한다.

고양시기독교연 42차 정총



고양시기독교연합회(회장 조규영 목사)는 구급 27일 오후 일산 베니스비파에서 제 42차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회장에 안도현 목사(이름다움교회)를 선출하고 회칙수정 등 회무를 처리했다. 총회에서는 그동안 사용해 오던 연합회의 명칭을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로 변경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회장을 대표회장으로 변경했다.

크리스천문협 황계정 회장 취임



한국크리스천문학가협회는 구급 28일 오후 수유중앙교회에서 201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황계정 회장을 취임시키는 한편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제2부 총회에서는 회장인사와 전반기 운영이시장의 회원에게 드리는 당부 말씀이 있었으며 새해에는 등단자가 모임을 새롭게 조직해 본회의 전위대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다.

경남기독교총연 회장 이종승 목사



경남기독교총연합회는 최근 경남 창원 임마누엘교회에서 제 12차 총회를 갖고 차기 대표회장인 수석부회장인 이종승 임마누엘교회 목사를 선출했다. 총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 등 임원진도 확정했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는 복음화율이 낮은 경남지역 복음화를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생명의 말씀

성도라면 세가지를 꼭 받아야합니다

(엡 6:17)



정형기 목사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특별재판위원장
· 영광순복음교회 담임
· 즐거운우리집 요양원 이사장

성도라면 세 가지를 꼭 받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됩니까? 첫째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실패자입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잘나가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7: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는 주님을 모릅니다. 믿는 자 중에도 천국에 못 들어 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성경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막16: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골10:10)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요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둘째로, 성도는 성령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도답게, 집사답게, 권사장로답게, 목사답게 살아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대로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회개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행2:38) "메드모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회개는 밥 먹고 설거지하는 것과 같습

니다.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없듯이 회개치 않은 심령에 성령은 오시지 않습니다. 회개(메타노이아)란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에 성령충만 받으시기 를 축원합니다.

2)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눅11: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행1:4)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다가 120분도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3) 말씀들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행10:44) 4) 철저히 순종할 때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행5:32) 5) 안수할 때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행19:6, 8:17).

셋째로, 복을 받아야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복

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사람을 성별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럼 성경에서 복 받은 시간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출20:24을 읽어보십시오.

1) 예배시간이 복 받을 시간입니다. 성경에 복 받은 사람들은 모두 예배를 통해서 복 받은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몸 드리면 -건강을 받습니다. 기도=응답, 시간=영생, 찬양=기쁨, 헌금=물질.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 감대상, 의자, 난로 등 사람을 왜 만들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늙으면 죽으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라고 만든 것입니다. (사43:7). 예배드리기 전에 참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2) 사람을 성별해서 복을 주십니다. 민6:23-27을 읽어봅시다. 축복은 주의 종이 받고 복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몇 가지 권세

(1) 축복권(6:23-27) (2) 거수권(출17:8) (3) 발언권(왕4:17)

주의 종이 한번 말한 것은 하나님이 책 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막11:23)

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사람을 성별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럼 성경에서 복 받은 시간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출20:24을 읽어보십시오.

1) 예배시간이 복 받을 시간입니다. 성경에 복 받은 사람들은 모두 예배를 통해서 복 받은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몸 드리면 -건강을 받습니다. 기도=응답, 시간=영생, 찬양=기쁨, 헌금=물질.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 감대상, 의자, 난로 등 사람을 왜 만들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늙으면 죽으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라고 만든 것입니다. (사43:7). 예배드리기 전에 참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2) 사람을 성별해서 복을 주십니다. 민6:23-27을 읽어봅시다. 축복은 주의 종이 받고 복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몇 가지 권세

(1) 축복권(6:23-27) (2) 거수권(출17:8) (3) 발언권(왕4:17)

주의 종이 한번 말한 것은 하나님이 책 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막11:23)

셋째로, 복을 받아야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복

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사람을 성별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럼 성경에서 복 받은 시간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출20:24을 읽어보십시오.

1) 예배시간이 복 받을 시간입니다. 성경에 복 받은 사람들은 모두 예배를 통해서 복 받은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몸 드리면 -건강을 받습니다. 기도=응답, 시간=영생, 찬양=기쁨, 헌금=물질.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 감대상, 의자, 난로 등 사람을 왜 만들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늙으면 죽으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라고 만든 것입니다. (사43:7). 예배드리기 전에 참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2) 사람을 성별해서 복을 주십니다. 민6:23-27을 읽어봅시다. 축복은 주의 종이 받고 복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몇 가지 권세

(1) 축복권(6:23-27) (2) 거수권(출17:8) (3) 발언권(왕4:17)

주의 종이 한번 말한 것은 하나님이 책 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막11:23)

셋째로, 복을 받아야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복

Large banner for 'National Syncretic Conference of Young Leaders' (전국 장로영합회 신년하례식) with a list of participants including Jo Yong-mok, Kim Sang-yong, Lee Sang-cheol, Lee Jong-bok, Woo Heung-ho, Park Deok-jin, Hong Seung-cheol, Choi Myeong-rak, Kim Dae-yong, and Jeong Won-jung.